

‘팔복동 역사와 정서’ 연극으로 펼쳐진다

전주문화재단, 연극 ‘댄스 플로어’ 6월 정기공연

전주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했던 팔복동 산업 단지의 서사를 담은 연극이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팔복예술 공장의 문화예술교육 대표 콘텐츠로 개발된 연극 ‘댄스 플로어’를 오는 6월,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1970~80년대 전주 팔복동 산업 단지에서 시작된 산업화의 흐름과 그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지역 산업의 역사와 정서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이 연극은 전주문화재단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60세 이상 지역 시민들의 실제 구술을 바탕으로 극본이 완성돼 일반적인 창작 공연과는 차별화된 깊이를 지닌다.

또한 극작, 연출, 연기, 무대 등 전 제작 과정에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해 팔복동의 이

야기를 공동 창작 형식으로 풀어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작품은 지난해 전주문화재단 ‘이팝프렌즈 예술상’을 수상한 오민혁 연출가가 극작과 연출을 맡았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관객이 예술인을 직접 후원하는 ‘이팝프렌즈’ 일시 후원회원 모집도 함께 추진된다.

공연은 6월 7~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 티켓박스 누리집(jonjibox.kr)에서 사전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팔복동이 품고 있는 고유의 기억과 정서가 연극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일상 가까이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경험으로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작품은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대표 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시



연극 ‘댄스 플로어’ 포스터

즌1 ‘엄마의 카세트테이프’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 공연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서 즐기는 태권도 향연

24·25·31일 ‘명품 태권도 시범 공연’ 개최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태권도 향연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펼쳐진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로 24~25일, 3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에 두 차례씩 옥외프락에서 ‘2025 명품 태권도 시범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와 국립전주박물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함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태권도의 위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태권도 품새와 기본동작을 응용한 호신술, 격파, 아크로바틱 등을 선보인다. 특히 격파는 체공도와 격파, 수직축회전 격파, 수평축 격파, 장애물 격파 등 화려한 기술을 무대 위에서 펼친다.

뿐만 아니라 한류와 더불어 K-태권도 또한 확산될 수 있도록 신나는 K-POP과 함께 하는 태권 댄스, 공연 시작에 앞서 관람



객 참여형 행사인 격파 도전, 태권도 및 국립전주박물관 관련 퀴즈를 통해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제3회 한국동시축제’ 성황리 개최

부안군문화재단, 대회·체험·공연 등 다채롭게 열려

(재)부안군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청이 후원하는 ‘부안, 꿈꾸는 놀이터’ 제3회 한국동시축제가 지난 17일 석정문화관 일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한국동시축제는 2,200여명의(주최측 추산) 어린이와 가족, 문학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회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등 동시를 통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됐다.



대회 프로그램에서 관내 10개 학교 13개 학

급이 참여한 ‘어린이 시인학교 경연대회’는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기발한 발상”, “상상 그 이상” 등 재치있는 상상이 수여됐다.

이어서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에서 1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별이이 님’팀의 “나는 쇼리꾼”이 장원을 수여했다.

동시축제의 꽃인 동시백일장에서는 388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인부 장원은 김은하님의 “모험(부안군수상)”, 청소년부 장원은 신서연 학생(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의 “그림자(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초등부 장원은 김승원(전주 효천초등학교) 학생의 “전학간 내 친구(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아이들이 동시를 통해 신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국팔도 한지기행 2회차 운영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 한지의 역사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기행 프로그램 ‘전국팔도 한지기행’ 2회차를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주천년한지관이 주관하며, 한지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을 탐구하는 교육형 당일치기 여행이다.

2회차는 6월 19일, 전주에서 출발해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지문화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지문화홍보관 ‘한지가현’에

방문해 전국 전통한지 공방과 다양한 지종(紙種: 종이의 종류)을 소개하는 전시를 관람한다.

이후에는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 전문 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을 방문해 전통 공예품과 한지유물을 감상하고, 한지의 문화사적 의미 등 한지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신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교통비와 입장료 등을 모두 포함해 1인당 2만 원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6월 5일 국악의 날 맞이 프로그램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6월 5일, 제1회 국악의 날을 맞아, 오전에는 관한투원에서 국악명상 프로그램을, 오후에는 예원당에서 기념공연을 각각 개최한다.

이날 오전 7시, 남원 관한투원에서는 아침 정원 속에서 국악과 명상을 결합한 힐링 프로그램 ‘숨 쉬는 정원’을 진행, 일상의 긴장을 풀고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성인 일반인으로 회차당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어 저녁 7시, 예원당에서는 제1회 국악의 날 기념공연 ‘다듬고 가꾸어 있고 있다’를 개

최, 이번 공연에서는 김무길, 김영자, 왕기석, 진유림, 오민재, 박은하 등 국악 명인과 국악을 다듬고 가꾸어 이어가는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 오민재 명인과 연희부가 함께 빛나던 비나리 무대로 문을 연다.

이어 김무길 명인과 기악단의 시나위, 왕기석·왕시연 부녀의 판소리 심청가 입체창, 진유림 명무와 무용단의 연흥무-부채춤, 김영자·김도현 모자와 서진희의 판소리 춘향가 입체창 무대가, 마지막은 박은하 명인의 개인 놀이와 연희부, 청년 연희단원들이 함께하는 판굿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예비 청년문화기획자 선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2025 청년문화기획자 지원사업’의 참여자 10인을 선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 기획자들은 지난 4월 공개모집과 인터뷰 심사를 통해 선발됐으며, 순수미술 전공 대학생부터 시각예술 작가, 인권활동가, 창극 배우, 팝핀댄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전주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문화기획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갖춘 예비 기획자들이 지역에 필요한 문화기

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참여자들에게는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장 전문가 특강, 실무 중심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획자의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관내 외 문화기관 탐방 및 외부 기획자와의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오는 10월 ‘미래문화발복’ 축제 기간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그룹

별로 실현하는 발표회가 열려 시민들과 소통하고 실천 경험을 쌓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김도빈 기획자(전 동네형들 공동대표) △이지현 기획자(‘널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표) △김꽃비 기획자(‘2025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수상자) △임소은 기획자(지역 문화기획 활동 중) 등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기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 기획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전주의 문화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